



부광중학교 환경사랑동아리 '초록물결'

체험하며 '환경을 알아요'

지난 5월 30일 부광중학교(교장 조재천) 저탄소 환경사랑동아리(지도교사 고경애 정재진) 70여명은 시화호 갈대습지공원을 찾아 생태체험활동을 실시했다. 평소 학업에 대한 부담과 바쁜 일상으로 좀처럼 자연과 접하기 어려웠던 동아리 회원들은 모처럼 교실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직접 환경사랑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부광중학교환경동아리 '초록물결'은 학교 생태숲을 가꾸면서 환경관련 문제의 과학적 해결방법도 탐구하기 위해 지난 2008년에 만들어졌다. 과학담당이면서 환경부장인 고경애(41) 선생과 25명의 학생들은 자연보호 활동, 봉사활동, 환경문제 실험탐구활동 등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이번 시화호 갈대습지공원 체험은 생태계를 이루는 생물들이 어떻게 서식하는지, 우리가 무심코 흘려보내는 생활하수의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 느끼고,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 정화되는지 직접 관찰하고 학습함으로써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환경사랑 방법을 배우는 행사였다. 시화호로 유입되는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갈대 등 수생식물을 이용한 자연정화 처리식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조성된 국내 최초의 대규모 인공습지를 둘러보고 환경생태관에서 영상자료를 통해 하천의 생활하수가 맑은 물로 정화되는 과정을 보는 동안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입에서는 감탄의 소리가 새어나왔다. 특히 습지내부에 설치된 관찰로를 통해 습지에서 생활하는 조류와 동물, 수초와 갈대 숲 사이로 맑게 정화된 물에서 순간순간 여기저기서 튀어오르는 물고기를 목격한 학생들은 탄성을 연발하였다. 또한 맑게 정화된 물이 시화호로 흘러가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살펴보는 학생들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도 진지했다. 지난해부터 부광중 환경사랑 학부모 동아리에서 친환경 비누 만들기, 친환경 삼투 만들기 등의 활동에 꾸준히 참여한 한 학부모는 "그동안 막연한 호기심으로 환경보전 활동에 참여해 왔었는데 이번 체험활동을 통해 수질환경의 오염상태의 심각성과 생활하수 오염을 줄이는 일에 앞장서야겠다"고 말했다. 동아리는 지난 2008년 '물벼룩이 다양한 물에서 어떻게 적응하는지' 등의 환경관련 탐구실험을 수행하여 환경 생태 지킴이로서 이론적 바탕을 기르려고 했고, 나무이름표 달기, 야생화 심고 가꾸기 등의 활동으로 학교 생태숲을 가꾸면서 자연과 생태의 가치를 배우고 환경지킴이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학교 생태 숲의 주먹이 반복해서 죽는 원인을 탐구함으로써 과학적 방법으로 생활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 결과 2008 환경동아리 콘테스트에서 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초록물결 회원들이 시화호 탐방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5월엔 시화호 갈대습지공원, 환경생태관을 견학하면서 오염된 호수를 인공적으로 조성된 갈대가 정화한 사례를 배웠고 건설 중인 조력발전소 홍보관에서

다양한 학습 활동 통해 해결방안 도출 노력 생태숲 조사...동아리 콘테스트 '동상' 수상



◆ 생태탐방을 통해 회원들은 자연의 소중함을 스스로 느끼고 있다.

는 밀물, 썰물의 압력차를 이용해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려는 노력을 확인했다. 동아리는 앞으로 인천대공원 등에서 숲 생태체험 및 환경보전 활동을 할 계획이고 수도권 매립지 및 인천 서구 경서동의 국립생물자원관도 견학할 계획이다. 또한 부광중 환경사랑 학부모회와 함께 환경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EM 싹뜨물 발효액'을 만들어 학교와 가정에 보급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심화탐구 활동으로 기르기 제겨에 효과적인 친환경 세계 기능 물질을 탐색하고, 탐색된 물질이 식물 싹트기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함으로써 환경에 안전한 지 검증한 후 탐색된 물질을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아볼 계획이다. 심화 탐구한 결과를 확산하기 위한 활동으로 '인천 과학대전'에 참가해 피부에 기생하는 모낭충 관찰하고 EM 클린징이 피부 모낭충 제거에 효과적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실험 발표도 계획되어 있다. 또한 동아리 학생들이 봉사활동 및 과학 탐구활동 외에 내면적 성장을 하게하기 위한 자이탐색 및 리더십을 기르는 교육도 평생교육 서포터즈의 지원을 받아 6월에 실시할 계획이다.

홍성인 기자 hsi@eduyonhap.com

경북여정과, 청소년 창작대전 대상 수상

3학년 태기연, 시 '모기향' 보건복지가족부장관상

제5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청소년 창작 대전'에서 경북여자정보고등학교 3학년 태기연 재학 중인 태기연 학생이 시 부문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청소년 창작 대전'은 다양한 재능을 가진 9-18세 대한민국 청소년이 참가하는 대회로, 시·수필·그림·서예·사진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공모했으며 그 중 태기연 학생은 시 부문에서 '모기향', '가족', '밤하늘'이라는 주제의 시 3편을 응모했으며, 그 중 '모기향'이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이 학생은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문학영재반에서 시 창작활동을 배우고 있으며 또한 반장으로서도 타의 모범이 되는 진지하고 열띤 활동을 하고 있다. 평소에도 다양한 백일장에 습작을 응모해서 탁월한 문학적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이번 창작 대전에도 평소에 쓴 작품을 응모해서 전국 대상이라는 영광을 차지했다.

이 학생은 시를 잘 쓰기 위해 일년에 100권 정도의 독서를 하고 있으며, 소설을 읽다가 묘사가 잘 된 부분이 있거나 새로운 어휘가 있으면 바로 노트에 정리하여 어휘력과 표현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중3때 교내 백일장에서 상을 받으면서 시를 쓰기 시작했으며, 매년 교내 백일장 우수상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대구광역시 예술경연대회 장려상, 통일글짓기 대회 장려상, 달구벌 글짓기 대회에 장원을 했다. 태기연 학생은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학과에 입학하여 시집을 내고 싶다"는 소감을 말했다.

모기향

경북여자정보고등학교
3학년 태기연

시골 할머니 맥 마당에
뚝자리를 깔고 누웠다
잔디위에 모기향이
붉은 머리를 뺨뺨이 세운 초록 뱀처럼
파리를 들고 있다

우리조각처럼 날카롭게
빛나는 별들 너머로
승천하듯 모기향 연기가 피어오른다.
매캐한 줄기를 공중에 흩뿌리며
초록 뱀이 몸을 태운 자리엔
구불구불한 회색 허물만이 남았다.
초록 뱀은 여름밤,
살 속을 파고드는
밤이슬 젖은 풀 속을 거슬러 올라
또 진한 자욱을 남기며
허물을 벗을 것이다
나는 팔을 베고
비적비적 잠에 빠져 든다
꿈속에서 나도 뱀이 되어 허물을 벗는다.
모기향처럼 고요하고 느릿하게

아스라한 내 꿈속으로 별빛이
종소리처럼 드문드문 스민다.

www.eduyonhap.com
www.kyobobook.co.kr
www.gyemul.com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위한 결정판

핵심 사회복지법제론

• 제2판 최신판 출간 • 조만현·한승훈 공저 • 형국출판사 간

• 전국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준비용
• 사회복지사 1급 시험준비
• 사회복지사 1급 시험준비
• 사회복지사 1급 시험준비

책의 특징

1. 시험에 필요한 필수내용의 핵심을 요약하였다.
2. 최신 법령 (2008년 3월 이전)을 빠짐없이 담아내어 반영하였다.
3. 영역별로 1장씩의 복선화 하여 30장으로 나누어 편집하였다.
4. 강좌별 확인학습을 위한 중요문제를 해설과 함께 수록하였다.
5. 국내 및 해외는 사회복지법제 전문가 (법학박사)가 저술하였다.
6. 시험에 필요한 요약을 별도로 수록하였다.
7. 개념상 혼란을 초래하는 내용들을 정리하였다.
8. 한국연구개발정보교육원 (study.co.kr) 동영상을 강의로 제공 사용하고 있다.

항상 좋은 책으로 보답하는 - 형국출판사 TEL : (062)653-1998